

보츠와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582천 km ²	G D P	163억 달러 ('14)
인구	216만 명 ('14)	1인당 GDP	7,750 달러 ('14)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ula (BWP)
대외정책	실리주의 외교	환율(달러당)	8.96

-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한반도의 2.7배 규모의 국토와 21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비아(북), 짐바브웨(동), 나미비아(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과 국경을 접함.
- 민족구성은 Tswana 79%, Kalanga 11%, Basarwa 3% 등으로, 공용어는 영어이며 국민의 약 71%가 기독교를 믿고 있음.
-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보츠와나민주당(BDP)의 장기 집권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민주적 정치체제가 발달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음.
- 독립 이후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최빈국에서 중상위 소득국으로 변모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견고한 모습을 보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광산업의 성장 정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큰 폭의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보인 2009년을 제외하면, 다이아몬드, 니켈, 석탄 등의 천연자원 및 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4~6%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에는 공공투자 증대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와 인플레이션을 하락 및 경제성장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주요 산업인 다이아몬드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전년(5.9%)보다 하락한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도 광산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출과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광산업의 성장 정체가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4.2%를 기록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하락세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교통비와 가계비용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민간소비 증가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교통비와 가계비용의 하락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5.9%)대비 하락한 4.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도 저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세의 유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균형 상태 달성 전망

- 정부는 2014년 10.7%의 재정수입 증가를 전망하였으나, 광산업의 성장 부진으로 재정수입 증가는 3%대에 그친 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재정지출은 9.5%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3년 GDP 대비 1.1%의 흑자에서 0.4%의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Ian Khama 대통령이 2014년 선거에서 공공부문 임금 인상, 에이즈 확산 방지, 청년실업 해결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15년 재정수지는 재정균형에 가까운 상태인 GDP 대비 0.2%의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o	2015 ^f
경제 성장률	6.2	4.3	5.9	4.4	4.2
재정수지 / GDP	-0.1	0.7	1.1	-0.4	0.2
소비자물가상승률	8.5	7.5	5.8	4.8	3.3

자료: EIU,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보츠와나의 주요 산업은 다이아몬드 산업으로 생산량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와 정부수입의 약 3분의 1,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다이아몬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 세계 다이아몬드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수요·경기에 경제성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음.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다이아몬드 산업이 크게 위축되며 경제성장률은 -7.8%를 기록한 바 있음.
 - * 질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나, 보츠와나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보석용으로 활용되어 금액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IMF 보고서는 2028년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광산의 고갈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2014년 다이아몬드 회사인 De Beers 역시 2020년 고갈 가능성을 제시하며 산업다각화의 필요성을 지적함.

□ 지리적 단점, 높은 에이즈 발병률 등은 경제적 난관으로 작용

- 보츠와나는 내륙국이고 건조한 기후로 농수산업의 발달이 어려우며, 총 인구는 216만 명으로 경제규모가 작아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적은 인구에 HIV 감염률이 약 17%로 높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층의 기술력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이 34%에 육박하는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숙련노동력이 부족함.

□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산업 다각화 어려움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항구와 공항시설은 144개국 중 각각 114위와 101위를 기록하였으며, 광산을 개발하여도 생산된 광물의 수송을 위해서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어야 하는 등 산업 다각화를 위한 운송시설이 부족함.
- 특히, 전력시설은 144개국 중 139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전력시설확충이 제조업으로의 산업다각화 시도를 위한 선결과제로 제기됨.

나. 성장 잠재력

□ 석탄, 코발트, 구리,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

-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외에도 석탄, 코발트, 구리, 금, 니켈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석탄의 매장량은 2,000억 톤으로 추정되며, Anglo American, Exxaro, African Energy & CIC Energy 등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석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 주요 신규 광산 프로젝트

기업	광산	생산광물	추정 생산량 또는 매장량	년도
CIC company	Mmamabula	석탄	450만 톤/년	2016
African Energy	Sese	석탄	100만 톤/년	2016
Minergy	Mmambula	석탄	28억 톤	n.a.
Debswana	Jwaneng(연장)	다이아몬드	1억 캐럿	n.a.
Sentula Mining	Asenjo	석탄	탐사 및 타당성 조사 단계	n.a.

자료: BMI.

□ 안정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 신중한 경제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율이 낮고 정치적 간섭이 적어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입액(백만 달러) : 136('10) → 1,093('11) → 147('12) → 188('13)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

-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1968년부터 국가개발계획(NDP)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0차 NDP가 2009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10차 NDP는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영세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광산업 다음으로 유망한 부문인 관광업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노동자의 낮은 기술숙련도로 인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공공재원을 투자하고 있음.
 - 다이아몬드 외에 구리, 석탄 등 타 광물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륙국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갈라하리 사막을 거쳐 나미비아나 모잠비크로 이어지는 횡단 철도를 건설하여 수출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민간부문 사업 활성화 추진

- 보츠와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미 보츠와나 통신회사의 기업공개를 시도한 바 있으며,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향후에도 계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환급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가 선결과제로 판단됨.

3. 대외거래

□ 인프라 개발 관련 서비스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수출품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다이아몬드의 수출 증가와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으로부터 유입되는 관세수입(收入) 증가로 2013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12.0%의 흑자로 전환됨.
- 2014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13.6%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다이아몬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와 석탄, 니켈, 구리 등의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수입과 이전수지 적자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보다 낮아진 1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동성 관련 지표는 안정적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D.S.R.은 2014년 말 기준 3.9%를 기록하였고 단기외채비중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94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환유동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o	2015 ^f
경 상 수 지	-89	-509	1,769	2,059	1,822
경 상 수 지 / GDP	-0.6	-3.5	12.0	13.6	11.4
상 품 수 지	-729	-1,939	241	695	535
수 출	6,447	6,019	7,603	6,711	6,496
수 입	-7,175	-7,958	-7,362	-6,016	-5,961
외 환 보 유 액	7,885	8,082	7,628	8,240	9,434
총 외 채 잔 액	4,000	3,357	3,164	3,041	3,385
총 외 채 잔 액 / GDP	21.8	23.4	20.9	19.4	17.6
D . S . R .	3.8	4.3	3.7	3.9	3.7

자료: IMF, EIU 및 OECD.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총선 승리에 따른 Khama 대통령의 연임

- 2014년 10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보츠와나민주당(BDP)이 전체 의석수 61석 중 4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였음. 이에 따라, 현 Khama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됨.
 - 그러나 BDP의 득표율이 여당 집권 이래 최초로 5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Mogae 前대통령의 임기만료 전에 Khama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하여 임기 5년 중 2년간 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후 정치적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잔존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 및 높은 청렴도

- 보츠와나는 EIU가 발표하는 '2014 민주주의 지수'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 중 2번째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평가받음.
-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14년 175개국 중 31위를 기록하며 역내에서 가장 높은 청렴도를 보임.

□ 사회적 안정 속 높은 실업률과 HIV/AIDS 감염률은 사회적 문제로 상존

- 부족간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족간 분쟁이 없고 오랜 기간 소요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는 등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HIV/AIDS 감염률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부족한 대처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HIV 감염률은 2013년 기준 성인의 16.9%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정부는 HIV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 건립 등 공공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음.

- 실업률은 17.5%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15-19세 그룹과 20-24세 그룹의 실업률은 각각 41.4%, 34.0%로 젊은층의 실업률이 특히 높으나, 주요 산업인 광산업의 특성상 숙달된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미숙련된 젊은층의 실업률 해결은 산업다각화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역내 대외협력 강화

- 작은 경제규모와 고립된 지리적 상황으로 보츠와나의 대외협력 중요성은 매우 높아, 남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 형성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짐바브웨와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사형제도 유지와 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에 따른 이익배분 방식의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으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과거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음. 2014년 3월 말 현재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5,070천만 달러 수준으로 단기 1,410만 달러, 중기 3,660만 달러이며 ECA,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금액은 없는 등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2등급 유지, S&P, Moody's로부터 양호한 등급 유지

- OECD는 2014년 7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보츠와나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2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S&P는 2001년 신규로 등급을 부여하고 2010년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현재까지 해당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 역시 2001년 신규 등급 부여 후, 2009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A2 등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신용전망은 양사 모두 Stable을 유지하고 있음.

< 표 4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 (2014. 6.)	2등급 (2013. 6.)
S&P	A- (2010. 2.)	A (2001. 4.)
Moody's	A2 (2009. 3.)	A1 (2001.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1. 7. 23 (북한과는 2014년 2월 19일 외교 단절)

□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보츠와나 간 2014년 교역규모는 2억 2,645만 달러 규모로, 교역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 동(銅)제품, 기타 농산물임.

□ 해외직접투자(2014년 9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9건, 6천만 달러

< 표 5 > 한·보츠와나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20,655	141,915	218,83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자동차 등
수 입	1,722	2,164	7,615	기호식품, 동제품, 기타 농산물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보츠와나는 주요 산업인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해 매년 4~6%대의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공공분야 임금인상,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다이아몬드 수출의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다이아몬드 국제수요 회복으로 2013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GDP 대비 11.4%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2014년 10월 총 선거에서 기존 집권여당인 BDP가 여당 지위를 유지하며 Khama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함에 따라 정치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D.S.R.은 2014년 말 기준 3.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역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비중이 감소 추세이고 단기외채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외채상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임민교(☎02-6255-5727)
E-mail : ymg@koreaexim.go.kr